

보도자료



보도일시	2011. 1. 26.(수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1. 1. 26.(수) 09:30	담당부서	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
담당과장	나 석 권 (2150-4510)	담당자	김 완 수 사무관 (2150-4512)

제목: 「2011년 제2차 경제정책조정회의」 개최

- 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.26.(수) 08:30 정부중앙청사에서 「2011년 제2차 경제정책조정회의」를 개최하여,
- '구제역·AI 방역대책 추진현황', '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전략', '차세대(4G)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' 등에 대해 논의
- ② 윤증현 장관은
- 연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,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다면서
 - 그간 정부는 핵심 현안인 서민물가 안정, 구제역 방역 등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나
 -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여건이 여전히 어렵고 구제역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바
 -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경제의 위기요인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

③ 윤증현 장관은 「구제역·AI 방역대책 추진현황」과 관련

- 다음 주로 다가온 설 연휴기간 중에는 대규모 인구이동과 해외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바
 -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및 지역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
 -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 노력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

④ 윤증현 장관은 「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전략」과 관련

- 올해는 우리경제가 선진국의 진입을 앞두고 변곡점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로
 - “앞서 뛰지 않으면 도태된다”는 위기의식을 가지고
 -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며
- 그간 우리는 협소한 내수시장과 부족한 부존자원의 한계를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극복해 왔으나
 - 이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경제 환경은 “불확실성의 상시화”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
 - 이제 “제조업-수출” 중심의 전략만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것이 냉엄한 현실으로
 - 앞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“수출과 내수간 균형”이 잡히지 않으면
 - 골목이 심한 세계경제 여건 변화 속에서 선진하기 어려울 것이므로

- 내수 확대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
 - 지난 10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실정으로
 -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은 그간의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
 - 새로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언급

⑤ 윤증현 장관은 「차세대(4G)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」과 관련

-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은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구조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
 - 지난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한 우리 IT산업이 지속적으로 선전해 나가기 위해서는
 -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“새로운 파이”를 창출할 신산업분야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
 -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기반 경제(knowledge-based economy)의 핵심 플랫폼(platform, 場)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
 - 모바일 산업의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언급

○ 특히, 오늘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제41차 다보스 포럼의 주제도

- “새로운 현실의 공통 규범(Shared Norms for the New Reality)” 이라고 하는 바
- 오늘 논의되는 차세대 모바일 발전전략도 향후 펼쳐질 4G라는 “새로운 IT 현실”의 “국제적인 공통규범(Shared Norm)”으로 자리잡아
- 한국 IT 산업이 지속적으로 차세대 모바일 경쟁구도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

기획재정부 대변인